연말 디지털온누리 환급 혜택 잡아라… 최대 20% 할인

광주시, 내달 말까지 기존 10% 선할인에 추가 10% "소비 회복 마중물 기대"…7회차 지급 14만원까지

광주시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최대 하는 방식이다.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

광주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별 지원을 시작한다. 기존 정부의 10% 선 전남제주지역본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할인에 더해 광주시가 추기로 10%를 환급 오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

행사'를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하 시 최대치인 2만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고,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 한 소비환원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결제 금액의 10%를 디지털상품권으로 돌려받 을 수 있으며, 회차별 최대 환급 한도는 2

회를 위해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만원이다. 환급은 1만원 이상 결제 시부터 적용되며, 1000원 단위로 지급된다. 예를 들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어 3만원 결제 시 3000원 환급, 20만원 결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소상공

> 환급은 주간 단위로 이뤄진다. 참여 기 것으로 기대된다. 간은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총 7회차 로 나뉘며,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 환급된다. 다만 회차별 예산이 소진될 경 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인의 매출 회복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낼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어 곳) 늘어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 환급을 통해 나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다"고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현장지원단 운 영 등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원을 통해 10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월말 기준 골목형 상점가는 580개소 지 환급행사가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8377곳으 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활성회를 이끌어 로, 최근 4개월새 118% (6월 말 1만3025 이승홍 기자 photo25@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빛고을 농업인 한마당에 참석해 지역 우수 농특상물 품평회장을 둘러

"농업에서 미래를, 농민에게 희망을"

광주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을 맞아 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농업 화합의 장을 이뤘다. 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제30회 농업인 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고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 순으로 진행됐다. 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1일에 열

주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혁 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광주시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농업인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작으로, 농업 유공자 표창 수여, 농업인 제기차기 · 떡메치기 등 시민이 참여할 농업인의 날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 결의문 낭독, 우리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주시가 주최하고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과 합리적 농정개 고 말했다.

표창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농업인 15명에게 수여

부대행사로는 지역에서 재배한 쌀・꿀 ·과채류 등 100여종의 농산물을 선보이 기념식은 풍물놀이와 난타 공연을 시 는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가 열렸으며,

강기정 시장은 "농업인의 날은 농업의 농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탄소중 가치와 농업인의 노고를 되새기는 뜻깊 립 농업 실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은 날"이라며 "AI 중심도시 광주에 걸맞 '농업에서 미래를! 농민에게 희망 국가 식량주권·지급률 향상 △농촌·도 게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지원을 확 을!'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광 시 상생협력 △미래농업 혁신 선도 △ 대하는 등 농업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구례서 '해피BUS데이' 올해 다섯번째…의료 서비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구례실내체육관 에서 올해 다섯 번째 농촌종합복지서비스 '전남농협 해피BUS데이'를 운영했다.

장,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김치웅 구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관내 조합장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료병원의 의료 서비스(수액, 한방 파스, 1109개)로 전년(1829개) 대비 160개 증 점업 사업체 수도 2020년 80만4173개에 한방약제 조제 등) △누리안옵틱스의 시 가했다. 력 검사 및 돋보기 지원 △순천청암대 학 생들의 재능기부(네일아트, 손마사지, 헤 (광주 787개·전남 933개)를 기록한 뒤 즈 가맹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어 커트 등)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 프로그램으로, 전남본부는 올해 5월 장흥 (천관농협)을 시작으로 해남·곡성·무안 했다. 에 이어 이번 구례까지 총 5회 운영했다.

지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을 찾아 주민들에 게 즐거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프로그램" 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민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겠 전남 2367명)으로 조시됐다. 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젠슨 황이 반한 K-치킨' 지역 프랜차이즈 늘었다 1989개 운영 3년 연속 증가세…전국은 감소

킨은 세계 최고'라고 말한 가운데 광주·전 대비 1647개 감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 남지역의 치킨집 수는 3년 새 260여개가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 개(2022년), 3만9789개(2023년)로 3년 면 2023년 기준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치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행사에서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 킨전문점 수는 1989개(광주 880개·전남

치킨전문점 수는 지난 2020년 1720개 2021년 1822개(광주 815개·전남 1007 '해피BUS데이'는농협중앙회가농림축 개), 2022년 1829개(광주 798개·전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종합복지 남 1109개)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에 뒀다. 같은 기간 치킨전문점 종사자 수도 증가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의료와 복 1891명·전남 2017명), 2021년 3896명 (광주 1841명·전남 2055명)으로 줄었지 만, 2022년 3945명(광주 1779명·전남 2166명), 2023년 4303명(광주 1936명・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한국 치 년 기준 3만9789개로 전년(4만1436개)

치킨집 수는 지난 2020년 4만2743개를 기록한 뒤 4만2624개(2021년), 4만1436

치킨 업종을 포함한 전체 음식점 및 주 서 2023년 79만3586개로 줄었다.

전체 치킨집 수는 줄었지만, 프랜차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8년 2 만5110개에서 5년 만에 5000개 가까이 증 1031개), 2023년 1989개(광주 880개·전 가해 2023년 2만9805개로 3만개를 눈앞

치킨은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치킨전문점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962명(광주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약 75%로 높아

>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 준 647개로 2020년 (477개) 보다 170개 늘

반면 전국 치킨전문점 수는 지난 2023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연합뉴스

광주일자리재단, 중기·소상공인 판로 확대 MOU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협약 수출 기업 발굴·홈쇼핑 진출 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재단 3층 최상준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의 지역 밀착형 지원 역량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전국 네트워 크 및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

망 기업 발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매 확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재단 3층 최상준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고 말했다.

대표이사는 "재단은 지역 민생경제를 살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 유 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수출 지원 과 홈쇼핑 판로 개척이라는 두 축을 중심 지역 우수 제품의 TV 홈쇼핑 진출 및 판 으로 지역 기업이 침체된 경제 상황을 돌 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본부장은 "지역 경제의 구심점인 재단과 손잡게 돼 뜻깊다"며 "중앙회의 전국적 인 프라와 재단의 추진력을 결합해 지역 기업 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